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1, 177 - 186

한국판 Bermond-Vorst 감정표현 불능증 질문지(BVAQ-K) 타당화를 위한 예비 연구 :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연희 현명호†

중앙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측정하는 BVAQ(Bermond-Vorst Alexithymia Questionnaire)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여대생 273명에게 실시하여 그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BVAQ-K가 동형검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BVAQ-A와 BVAQ-B로 나누어 신뢰도를 구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BVAQ-40K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준거타당도를 위해 TAS-20K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BVAQ-A와 BVAQ-B는 각각 3요인 구조로 유사하지만 요인 당 문항 수가 달라 동형 검사로 보기 어려웠고, BVAQ-K의 내적 일치도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 한 수준이었으나 반분신뢰도나 문항 구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20문항의 동형 검사라 기보다는 단일 검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국판에서는 이 단일 검사가 30문항 5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VAQ-K의 하위척도와 상응되는 TAS-20K의 하위척도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준거관련 타당도도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추후연구와 관련된 제언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감정표현 불능증, BVAQ-K, TAS-20K, 신뢰도,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65)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Nemiah와 Sifneos(1970)가 감정표현 불능증(alexithymia)을 처음 소개한 이후, 오늘날 감정표현 불능증은 일반적으로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결함이 특징인 언어와 사고의 인지스타일, 또는 정서 조절의 결함으로 보고 있다(Taylor, Bagby, & Parker, 1997). Sifneos(1972)는 감정표현 불능증인 사람의 특징으로 첫째, 정서의 재인, 확인 및 묘사에서 그리고 정서 상태와 신체적 각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고, 둘째, 공상 및 다른 상상 활동의 빈약함으로 나타나는 상징화에 손상이 있으며, 셋째, 내적인 경험보다는 외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한편, Bagby와 Taylor(1997)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 논리적으로는 관련되는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는 첫째, 감정 확인에 있어서 그리고 신체 감각으로 생긴 정서 각성과 감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둘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셋째, 공상의 빈약함으로 인한 경직된 상상 능력, 넷째, 자극에 기초한 외부 지향적인 인지 스타일 등의 구성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TAS-20(Toronto Alexithymia Scale-20)은 감정표현 불능증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Taylor, Ryan 및 Bagby(1985)가 개발한 이후 4요인 구조가 확인되지 않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나온 척도이고, 감정 확인의 어려움, 감정 묘사의 어려움 및 외적 지향사고 등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가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으나(Müller, Bühner, & Ellgring, 2003), 다양한 문제점이 비판되고 있다(Müller, Bühner, & Ellgring, 2004).

특히, Vorst와 Bermond(2001)는 TAS-20의 문제점으로 첫째, 공상하기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어 감정표현 불능증의 포괄적인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며, 둘째, ‘정서경험하기의 어려움(Difficulty of Emotionalizing)’이 Taylor 등(1985)이 주장했던 핵심적인 감정표현 불능증의 특징 중 하나일 수 있고, 셋째, 역 채점 문항이 균등하지 않아 반응경향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요인의 문항수도 달라서(요인 1은 7개, 요인 2는 5개, 요인 3은 8개 문항) 전체 TAS-20의 총점에 균등하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Bermond, Vorst, Vingerhoets와 Gerritsen(1999)은 TAS-20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문항 암스테르담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Amsterdam Alexithymia Scale; 이하 AAS)를 개발하였고, 이후 Vorst와 Bermond(2001)가 20문항을 첨가하여 동형 검사이인 Bermond - Vorst 감정표현 불능증 질문지(Bermond - Vorst Alexithymia Questionnaire; 이하 BVAQ)로 발전시켰다. 이 질문지는 5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며, 언어화 요인은 자신의 정서 반응을 묘사하거나 소통하려는 경향성 또는 능력의 정도를, 공상하기 요인은 가상적 사건에 대해 상상하는 공상, 상상 또는 백일몽을 꾸는 경향을, 정서적 속성에 대한 확인하기 요인은 개인의 각성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정도를, 정서 경험하기 요인은 정서 유도 사건에 의해 정서적으로 각성될 수 있는 정도를, 마지막으로 정서 상태에 대해 분석하기 요인은 개인의 정서 반응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정도를 각각 말한다. 여러 연구결과, 학생 표본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BVAQ의 신뢰도, 타당도 및 5요인 구조의 안정성은 상당한 일관성이 있었다(Müller, Bühner, & Ellgring, 2004). 본 연구는

BVAQ를 번역한 후 여대생을 대상으로 BVAQ-K를 타당화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한국판 BVAQ의 번역 과정

BVAQ의 원 제작자인 Bermond에게 번역을 허락받고 영어판을 입수하였다. BVAQ는 네덜란드 어로 개발되었으나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 및 연구되고 있다. 일차로 영어권에서 수년 간 거주한 임상심리 전문가 1인과 영국공인 미술 심리치료사 1인이 BVAQ 영어판을 한글로 번역하고, 영어권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상심리학 석사과정 학생이 다시 영어로 역 번역하였으며, 원래의 표현에 부합하는지 원 제작자와 수차례 협의하여 완성하였다.

참여자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여학생 290명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전체 문항의 총점을 기준으로 Mahalanobis 거리가 10이상인 17사례를 극단치로 정의하여 제외하였다. 최종 273사례의 평균 연령은 21.92세였고, 표준편차는 3.61이었다.

측정 도구

Bermond-Vorst 감정표현 불능증 질문지 (Bermond-Vorst Alexithymia Questionnaire).
Bermond와 Vorst(2001)가 감정표현 불능증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BVAQ는 동형검사 질문지로,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된다. 5개의 하위척도는 A형과 B형에서 각각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고, 두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나에게 전적으로 해당된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에 반응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감정표현 불능증이 높음을 의미한다. BVAQ 네덜란드 어판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85였고, 하위척도인 정서 경험하기는 .75, 공상하기 .82, 정서 확인 .76, 정서 분석 .77, 그리고 언어화는 .87이었다(Vorst & Bermond, 2001).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 (TAS-20K, 2003). Taylor 등(1985)이 개발한 이후 최종 20문항으로 구성된 Toronto Alexithymia Scale-20(1992)은 세 종류의 한국판 TAS-20이 있다. 첫째는 이양현, 임효덕 및 이종영(1996)의 번역판(TAS-20K)이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수정한 두 번째 TAS-20K(정운선, 임효덕, 이양현, 김상현, 2003)가 있으며, 신현균과 원호택(1997)의 23문항 K-TAS는 TAS-20을 번역, 수정 및 새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 중 원판과 가장 유사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하다는 결과(정운선 등, 2003)에 따라, TAS-20K(2003)를 선택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고 3요인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TAS-20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1이었고, 감정 확인의 어려움 .83, 감정 묘사의 어려움 .81, 외적 사고 지향은 .48이었다.

자료 분석

여대생 273명의 자료에 대해, BVAQ-K가 동형

검사인지를 확인하고자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40문항의 BVAQ-K에 대해서도 요인분석 및 모형 부합도를 확인하였다. 또,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TAS-20 하위 요인과의 상관을 구하였다.

결과

BVAQ-A형

BVAQ-A형에 대한 신뢰도를 구한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681이고,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r)의 범위는 .106에서 .386이었다. 일반적으로 유의한 상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간주되는 .20 미만(Kline, 1986)의 문항 및 문항 삭제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을 제외하여 2, 4, 6, 7, 10, 11, 12, 14, 17, 19, 20번 등 모두 11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11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75이고,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의 범위는 .253에서 .495사이였다.

이 11문항에 대해 주축 분석(principle axis analysis)을 적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KMO(Kaiser Meyer-Olkin)의 표집 적절성 지수(Measure of Sampling Adequacy: MSA)는 .703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p<.01$) 표본 특성으로 인해 그릇된 요인구조를 산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4요인이었으나, 스크리 검사결과를 고려할 때 3요인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3요인으로 지정 후 선행연구(Vorst & Bermond, 2001)와 동일하게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에는

12, 7, 2, 19, 17, 14번 문항이 23%의 변량을 설명하였고, 요인 2에는 6, 11, 4번 문항이 17%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요인 3에는 20, 10, 19번 문항이 부하되어 8%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부하량이 .30미만이거나, 부하량의 차이가 .10이하이면 삭제하는 일반적인 기준(Dillon & Goldstein, 1984)에 따라, 3개 문항(요인 1의 14번, 요인 2의 4번 문항, 요인 3의 19번 문항)이 다시 제외되었다. 요인 1의 4개 문항은 이론상 공상하기의 어려움 요인에 해당되며, 요인 2는 언어화의 어려움 요인이고, 요인 3은 정서 분석의 어려움 요인이다. 결국, BVAQ-A형은 3요인 구조, 8개 문항으로 확인되었고, 내적 일치도 계수는 요인 1이 .644, 요인 2가 .674, 요인 3이 .502였다.

BVAQ-B형

BVAQ-B형에 대해 BVAQ-A형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 결과, 23, 25, 33, 36, 28번 문항이 제외된 15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47이었고,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r)의 범위는 .221에서 .437사이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 표집 적절성 지수(.804)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p<.01$)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BVAQ-A형과의 균등성을 고려해 3요인으로 지정하고, 같은 절차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요인에는 22, 27, 32, 37, 29번 문항(23%)이 부하되고, 요인 2에는 31, 21, 26, 38번 문항(14%)이 부하되며, 요인 3에는 35, 24, 34, 30, 39, 40 문항(7%)이 부하되었다. 이중 요인 1의 4개 문항은 모두 공상하기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이며(29번 문항은 앞서 기술한 선별기준에 따라 제외), 요인 2에 부하된 31, 21, 26번 문항은 언어화의 어려움 요인에 해당되며 38번 문항은 확인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한편, 요인 3에 부하된 30, 35, 40번 문항은 분석의 어려움에

해당되며, 24, 34, 39번 문항은 정서 경험하기의 어려움에 해당된다.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각각 요인 1이 .826, 요인 2가 .722, 요인 3이 .623이었다.

이처럼 BVAQ-K를 A형과 B형으로 나누어 요

표 1. BVAQ-40K(30)의 문항별 요인 부하량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22. 거의 공상을 하지 않는다	.859	.044	.045	.031	.021
12. 자주 공상을 한다	.856	-.045	.005	.068	.040
37.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공상에 잠긴다	.776	-.030	-.044	.050	-.050
27. 이상한 공상 이야기를 생각해내기 좋아한다	.772	.081	-.124	.112	-.039
7. 좀처럼 백일몽을 꾸거나 공상을 하지 않는다	.695	.024	.043	.069	-.029
32. 가상적인 일이나 사건에 대해 공상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575	.228	.092	.054	.118
2. 잠들기 전에, 다양한 사건, 만남, 대화에 대해 상상하곤 한다	.488	-.027	.106	-.005	.245
17. 동화나 이상한 이야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433	.074	.046	.073	.017
31.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025	.732	-.066	.114	.264
11. 친구에게조차 내 감정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	-.018	.719	.251	.051	.042
21. 사람들은 종종 내 감정에 대해 좀 더 표현하라고 말한다	.110	.711	.159	.078	.074
6. 내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087	.647	.224	.250	-.199
1.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007	.637	-.017	.013	.174
26. 동요될 때에는 내 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136	.552	.283	.225	-.054
9. 슬퍼 우는 사람을 봐도, 내 마음은 그대로이다	.010	.075	.707	-.039	.250
39. 슬퍼 우는 사람을 보면, 나도 슬퍼진다	-.008	.024	.673	.013	.321
24.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 크게 열광할 때에도 나는 평온하다	-.055	.193	.583	-.005	-.018
4.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도, 내 마음은 차분하고 평온하게 유지된다.	.134	.064	.530	.156	-.291
34. 실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별 느낌이 없다	-.039	.076	.491	.257	.134
14. 주변에서 친구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하면, 나는 감정적으로 된다	.270	.022	.438	.132	-.118
29.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자주 정서에 압도된다	.318	-.047	.392	.229	-.273
40. 긴장될 때, 그 감정이 정확히 어디서 생겨나는지 알고 싶다	.020	-.098	.135	.593	.027
20.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130	.059	-.040	.579	.210
30.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05	.215	.022	.578	.032
10.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070	.190	.136	.575	.059
5. 좀처럼 내 정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019	.089	-.078	.550	.238
35.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자주 분석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139	.123	.049	.537	-.028
25. 정서에 대해서는 이해할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009	.054	.211	.418	.087
38. 기분 좋을 때, 내가 열광적인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마음이 들뜬 것인지 알고 있다.	.090	.209	.072	.219	.734
18.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즐거운 것인지, 마음이 들뜬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044	.015	-.029	.185	.544
고유치	5.60	3.66	2.47	1.94	1.64
설명량	15.02	10.70	8.11	5.70	4.63
Cronbach's α	.823	.799	.802	.752	.715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구조는 유사하지만 각 요인 당 해당 문항들의 수가 다르고, 요인 3의 경우에는 요인 내용도 다소 상이하였다. 특히, BVAQ-A 요인 3의 신뢰도가 낮아 외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BVAQ-40K에 대한 Spearman-Brown 계수가 .91이고, Guttman 반분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나고 있어, BVAQ-40K는 동형검사보다는 40문항의 단일 검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0문항 BVAQ-K에 대해 요인구조를 검증해 보았다.

BVAQ-40K

BVAQ-40K에 대해,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을 기준으로 문항 8, 13, 15, 23, 33, 36이 제외되고, 해당문항의 반응평균이 동일해야 함을 검증하는 Hotelling T squared값을 기준으로 16, 19, 3, 28번 문항들이 제외되어, 최종 30 문항이 남았다. 이 30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6이고,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은 .218에서 .621의 범위였다. 이 내적 일치도 계수는 선행연구(Vorst & Bermond, 2001)에서의 .85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 30문항은 여대생 표집에만 한정되며 전체 40 문항 중 일부만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반응자만으로 모집단의 변인 영역을 규정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인의 모집단에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을 때 동일한 특성을 갖는 변인이 되도록 요인을 추출하는 알파요인분석(alpha factor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의 표집 적절성 지수(.822)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p<.01$), 요인 분석에 적합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동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3요인을 가정할 필요가 없었고 선행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5요인을 가정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5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요인 1에는 8개 문항(15.02%)이, 요인 2에는 6개 문항(10.70%)이, 요인 3에는 7개 문항(8.11%)이, 요인 4에는 7문항(5.70%)이, 그리고, 요인 5에는 2문항(4.63%)이 부하되어, 결국, 5요인 30문항이 모두 43.6%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BVAQ-K의 5요인은 Vorst 와 Bermond(2001)의 요인구조와 상응하는 유사성이 있어, 요인의 이름도 Vorst와 Bermond(2001)의 요인과 동일하게 명명하였다. 요인 1은 “공상하기의 어려움”이라 명명하였고, 대표 문항은 “거의 공상을 하지 않는다”이다. 요인 2는 “친구에게 조차 내 감정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며 “언어화의 어려움”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3은 “정서 경험하기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고, 여기에는 “실망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별 느낌이 없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요인 4는 “정서 분석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는데, “긴장될 때, 그 감정이 정확히 어디서 생겨나는지 알고 싶다”가 대표 문항이다. 요인 5는 “정서 확인의 어려움”으로 명명하였으며, “기분 좋을 때, 내가 열정적인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마음이 들뜬 것인지를 불분명하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 5요인 모형은 GFI=.921, AGFI=.920, CFI=.896, NFI=.904, RMR=.069, RMSEA=.077이어서 수용할만한 우수한 수준이었다.

준거관련 타당도

BVAQ-K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TAS-20K의 하위요인과 상관을 구하였다. BVAQ의 정서언어화의 어려움, 정서분석의 어려움 및 정서확인의 어려움 요인은 TAS-20K의 3개의 하위요인 즉, 감정 확인의 어려움, 감정 묘사의 어려움 및 외적 지향사고와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BVAQ-K의 언어화의 어려움과 TAS-20K의 감정 묘사의 어려움은 상관이 높았고($r = .823, p < .01$), 둘째, BVAQ-K의 정서 분석의 어려움과 TAS-20K의 외적 사고지향 간의 상관($r = .687, p < .01$)이 높았으며, BVAQ-K의 정서 확인의 어려움은 TAS-20K의 감정 확인의 어려움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 = .331, p < .05$). 한편, TAS-20K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BVAQ-K의 공상하기의 어려움 요인 및 정서 경험하기의 어려움 하위요인과 TAS-20K의 하위 요인과의 상관을 비교할 경우,

공상하기의 어려움 요인은 TAS-20K의 외적 사고지향과 상관($r = .264, p < .01$)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TAS-20K의 다른 요인과는 상관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BVAQ-K의 준거 관련 타당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논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VAQ-40K가 동형검사인지를 확인한 결과, A형과 B형은 요인 구조는 유사하나 각 요인 당 해당 문항 수가 다르고, BVAQ-40K의 반분 신뢰도 계수를 고려할 때, 동형검사라기 보다는 단일 검사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BVAQ-40K에 대한 분석결과, 30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수용할만한 수준이며, 5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Vorst와 Bermond(2001)의 요인구조에 상응하는 유사성이 있었다. 셋째, BVAQ-K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 2. BVAQ-K의 하위 요인과 TAS-20K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

	BVAQ_T	FAN	VER	EMO	ANL	IDD	TAS-T	DIF	DDF
FAN	.622**								
VER	.661**	.144*							
EMO	.568**	.201**	.265**						
ANL	.649**	.236**	.332**	.290**					
IDD	.467**	.102	.292**	.114*	.296*				
TAS_T	.474**	.007	.681**	.056	.369*	.527*			
DIF	.081	-.197**	.309**	-.141*	.046	.331*	.808**		
DDF	.523**	.044	.823**	.160*	.217*	.321*	.807**	.486**	
EOT	.621**	.264**	.453**	.171*	.687*	.513*	.622**	.227**	.335**

주. BVAQ_T: BVAQ-K의 총점, FAN: 공상하기의 어려움, VER: 언어화의 어려움, EMO: 정서 경험하기의 어려움, ANL: 정서분석의 어려움, IDD: 정서확인의 어려움, TAS_T: TAS-K의 총점, DIF: 감정 확인의 어려움, DDF: 감정 묘사의 어려움, EOT: 외적 지향사고, * $p < .05$, ** $p < .01$

BVAQ-K의 하위요인과 TAS-20K의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계산한 결과, TAS-20K의 하위척도와 이에 상응하는 BVAQ-40K의 하위척도와는 상관이 비교적 높고, BVAQ에 새로 도입된 척도(공상하기, 정서 경험하기)와 TAS-20K의 총점 및 하위척도와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준거 관련 타당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BVAQ-K는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상하기 어려움 하위척도는 Sifneos(1972)의 정의 이후 감정표현 불능 중의 핵심으로 간주되나, TAS-20에서는 측정하지 못하여 중요한 부분이 무시된다는 비판(Sifneos, 1996)을 받았는데, BVAQ-K에서는 그 설명량이 커서 감정표현 불능중의 핵심적인 부분을 측정하고 있고, 공상하기의 어려움이 감정표현 불능중의 주요 부분임을 재확인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VAQ-40K에서는 정서 확인의 어려움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 10개 중 6문항이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너무 낮아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대표 문항: ‘긴장될 때, 이 감정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갈 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항상 알고 있다’ 등). 이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비록 원 저자와의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쳤지만, 원판인 네덜란드어 판이 아닌 영어판을 기준으로 번역하였기에 원문항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국어판에서는 공상하기의 어려움과 정서 경험하기의 어려움(정서 각성에 대한 의식적 자각의 정동적 차원)의 문항이 각각의 요인에 잘 부합되고 설명량도 높았던 반면, 정서의 의식적인 해

석인 인지적 차원에 해당되는 정서의 언어화 및 확인의 어려움은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은 낮아, 이는 한국인의 특성상 정서 각성에 대한 의식적 자각의 정동적 지각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반면, 이에 대한 인지적 해석은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 사용과 관련, BVAQ-K는 BVAQ-A나 BVAQ-B로 나누어 사용하기 보다는 30문항 전체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서 확인 어려움 요인은 2문항만으로 측정되고 있어 이를 충실히 계 측정하길 원한다면 TAS-20K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에 일반화에 제한이 있고, 추후 연구는 남성을 포함한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준거 관련 타당도 확인을 위해 TAS-20K의 하위척도와의 상관만 구하였기에, TAS-20K에 포함되지 않는 공상하기와 정서 경험하기에 대해 다른 척도를 이용한 타당화가 필요하다. 셋째, BVAQ-K의 정서 확인의 어려움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던 문항의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아서 대거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문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BVAQ-K는 자기 보고형 척도로서, 신현균 등(1997)의 제안처럼 질문지 척도의 타당도를 직접적으로 밝히기 위해 실제로 정서적 정보와 비정서적 정보를 다르게 처리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정서적 스트롭 과제나 회상 과제 및 얼굴 표현 연구 등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신현균, 원호택 (1997). 한국판 감정표현 불능증 척도의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6(2), 219-231.
- 이양현, 임효덕, 이종영 (1996).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척도(TAS-20K)의 개발과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5(4), 888-899.
- 정운성, 임효덕, 이양현, 김상현 (2003). TAS-20의 한국판 3종간 신뢰도 및 타당도 비교. *정신신체의학*, 11(1), 77-88.
- Bagby, M., & Taylor, G. (1997). Affect dysregulation and alexithymia. In G. J. Taylor, R. M. Bagby, & J. D. A. Parker(Eds.),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Alexithymia in Psychiatric Illness*(pp. 26-45).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mond, B., Vorst, H. C. M., Vingerhoets, A. J. J. M., & Gerritsen, W. (1999). The Amsterdam Alexithymia Scale: Its psychometric values and correlations with other personality trait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8, 241-251.
- Dillon, W. R., & Goldstein, M. (1984).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John Wiley & Sons.
- Kline, P. (1986). *A Handbook of Test Construction*. London: Methuen.
- Müller, J., Bühner, M., & Ellgring, H. (2003). Is there a reliable factorial structure in the 20-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 A comparison of factor models in clinical and normal adult sampl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5, 561 - 568.
- Müller, J., Bühner, M., & Ellgring, H. (2004). The assessment of alexithymia: psychosomatic properties and validity of the Bermond-Vorst alexithymia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373-391.
- Nemiah, J. C., & Sifneos, P. E. (1970). Affect and fantasy in patient with psychosomatic disorder. In O. Hill(Ed.), *Modern Trends in Psychosomatic Medicine*. (vol. 2, pp. 26-34).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Sifneos, P. E. (1972). *Short-Term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ri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fneos, P. E. (1996). Alexithymia : past and presen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 137-141.
- Taylor, G. J., Bagby, R. M., & Parker, J. D. A. (1997).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Alexithymia in Medical and Psychiatric Illnes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G. J., Ryan, D. P., & Bagby, R. M. (1985). Toward the development alexithymia scal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44, 191-199.
- Vorst, H. C. M., & Bermond, B. (2001).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Bermond-Vorst Alexithymia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413-434.

원고접수일: 2010년 2월 10일

제재결정일: 2010년 3월 8일

A Preliminary Study of Validation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Bermond-Vorst Alexithymia Questionnaire: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Sample

Yeon-Hee Lee Myoung-Ho Hyu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nslate and execute preliminary study of validation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Bermond-Vorst Alexithymia Questionnaire(BVAQ-K). Two hundred seventy three female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the BVAQ-K and TAS-20K. First,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structures of two parallel versions of 20 items. They have relatively similar structures but they don't have same number of items of factor. But,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the BVAQ-40 K confirmed 5 factor structure as hypothesized. The subscales are denoted Fantasizing, Emotionalizing, Identifying, Verbalizing, and Analysing. Th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BVAQ-K showed good and was acceptable. The subscales of BVAQ-K, Analysing, Identifying, Verbalizing which are corresponding with subscales of TAS-20K correlated with subscales of the TAS-20K. And, Fantasizing and Emotionalizing subscale of BVAQ-K which are not corresponding with TAS-20K did not correlate with TAS-20K. So, it is implicated that BVAQ-K has the criterion validity.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relation with future studies.

Key words : Alexithymia, BVAQ-K, TAS-20K, Validity, Reliability